

책을 이렇게 천대해도 돼나?

박석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정말로 무서운 국가적 위기다. 6·25이후의 최대 국난이라더니 98년 한해야말로 책이 천대받은 특별한 해로 기억해야 하리라. 출판사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책방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삭막했던 해였다.

정말로 책을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며, 이렇게 천대(賤待)해도 된단 말인가? 옛말에는 풍랑에 위급했던 배 안에서도 《대학(大學)》을 읽었고,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전쟁통에서도 책을 읽는다는 말이 있다. 아마 책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해서 했던 말이리라. '형설(螢雪)의 공'이라는 말 역시 깊은 밤에라도 반딧불이나 눈빛을 통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인간의 노력을 비유한 말이다.

옛날의 어진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책을 읽도록 하려고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책을 구입하느라 애썼던 이야기는 흔히 전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가난 때문에 책을 빌려다가 읽고, 지붕에서 샌 비로 책이 젖어 고민했다는 이야기는 요즘 젊은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다. 물론, 옛날보다 책이 많고 흔한 이유도 있지만, 책을 읽는 데 얹힌 애절한 사연이 더이상 전해지지 않는 것은 무언가 잘못돼가는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돈이 없어 책을 사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때가 정말로 많았다. 어쩌다가 용돈이 생기면, 잉크냄새 짙게 나는 새책을 사서 책갈피 안에 자기 이름 석자를 쓰면서 느꼈던 환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대학생인 우리집 애들에게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일을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일까. 참으로 책이란 무용한 물건이 됐다는 말인가. 읽을 만한 책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사람이 살면서 지혜를 넓히고 정신세계를 키우는 방법으로 책을 통한 것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을까. 율곡 이이(李珥)선생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다. "성현(聖賢)들의 마음씨와 인격(人格)은 책을 통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다"고 해서, 옛날의 경전을 통해서만 사람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구절에서 예수의 마음씨를 읽을 수 있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던 석가모니의 마음씨도 불경에서 읽을 수 있으며, '인자(仁者)만이 적이 없다'는 공자의 말씀도 《논어》에서 읽을 수 있다. 책이 없고서야 책이 아니고서야 어디서 사람될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IMF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돈이나 경제만을 따지고,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독서나 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욱 위기에 빠질 것이요, 여기에서 진실로 벗어나려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책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와 인격을 높이는 일에 열중해야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위기극복은 빨라질 것이 분명하다. 광란의 쾌락에만 매몰되지 말고, 고전이나 신간의 책에서 참다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때만 나라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쓰러져가는 출판사와 문을 닫는 책방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새해에는 더 많은 책을 읽도록 노력해 보자. ♦♦♦

謹賀新年

애독자와 출판인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 새해

(재)한국출판금고 입직원 일동

신년 특집 / 2 올해 출판계 날씨 '구름 잔뜩, 햇살 한줌'

4 "새해엔 이런 책 쓰겠다"

이정우/김석철/김용택/도진순/조환규/
장석남/이병천/신경숙/김영하

6 99년 각 학문별 전망과 회고

철학(이진우)/국사학(이기동)/사회학(김성기)
경제학(김균)/과학(김성원)/문화일반(이중한)

12 1999년을 향한 각계의 목소리

나춘호/김낙준/박기봉/윤청광/
이기웅/김경희/유광종/김언호

특별기획 16 "21세기에도 남을 20세기의 빛나는 책들"

각계 100인이 뽑은 20세기 고전 130선

만화 17 책과 오과장 — 박시백

신년 콩트 18 픽션 게임 — 박덕규

19 우리 '책'들 — 이문환

리뷰 20 책으로 짓는 건축예술의 꿈

포럼 21 '인세지불방법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제15회 출판포럼

출판화제 22 미래서들이 예측하는 21세기 세계 · 외

이 책을 말한다 24 이문열의 《변경》(전12권)을 읽고 — 정혜경

화제의 출판 25 '동양고전총서' 시리즈 · 외

마케팅 캠프 26 "문제는 시기 놓치지 않는 밭빠른 대응" — 한기호

출판가 28 출판계 미디어 믹스로 '적과의 동침'

사서와 주민의 대화 30 주민이 이끄는 도서관을 위한 의견

서평 32 유송옥 《한국복식사》 — 조우현

카또오 노리히로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 김기협

33 캠벨 《신화의 세계》 — 유재원

34 디키 《예술사회》 — 황유경

기든스 《제3의 길》 — 정영태

35 스펜스 《현대중국을 찾아서 1·2》 — 윤혜영

36 도스 《조각난 역사》 — 김용종

홍육희 《생물학의 시대》 — 이은주

37 김미도 《세기말의 한국연극》 — 김미혜

이 책 그 사람 38 《상상력의 보물창고》펴낸 이남호씨

《달려가 보인다》펴낸 황인태씨

39 《노래, 사랑에 빠진 그대에게》펴낸 조용호씨

40 새책 속으로 / 44 새로 나온 책 / 60 독서페즐

표지 사진/한준호